



명품 자전거로 인기 여수 '관광 효자' 톡톡

궁항~달천마을 등 속속 개통
오동도~여자만 등 매력적
에코레일 자전거 열차 타고
전국서 동호인들 몰려들어

여수가 최근 잇따라 명품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개발하면서 라이더와 관광객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2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개통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과 달천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에 자전거로도 만들어지는 등 도로와 함께 자전거 길도 속속 열리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관광객과 라이딩족을 겨냥해 해안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광객과 라이딩족을 데리시는 여수의 자전거길은 ▲오동도~여자만 코스 ▲오동도~화대교 구간 ▲가사리방조제~화양면 공정리 구간 등 3개 코스로 구성됐다.

오동도~여자만 코스는 오동도를 출발, 당두~넘너리~하든베이호텔~성본교차로~여자만(복촌)으로 이어지는 41.3km 구간이다.

오동도를 비롯해 진남관, 여수해양공원, 낭만포차, 이순신광장, 돌산대교, 소호동동다리 등 여수 도심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즐비하다.



최근 자전거 여행의 인기를 증명하듯 여수를 찾는 라이더와 관광객이 뿐만 아니라 있는 라이더들. <여수시 제공>

특히 여자만 구간은 붉은 저녁노을을 따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명품 해안 자전거도로로 입소문이 나 동호회원들이 꾸준히 라이딩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오동도~화대교 구간은 오동도에서 거북선대교~도실삼거리~화대교~송시삼거리까지 이르는 25km 코스다. 거북선대교와 여수해양케이블카, 돌산공원에 무슬목 등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광을 한껏 접할 수 있어 여수 라이딩의 백미로 꼽힐 만하다.

이들은 코레일이 특별 편성한 MTB(산악자전거) 열차인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했다.

으로 연결되는 19.4km 구간은 고즈넉한 어촌 풍경을 따라 드넓은 갯벌과 울망줄망한 섬들의 어우러짐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같은 자전거 길의 인기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여자만 일대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국 자전거 동호인 200여 명이 자전거 열차를 타고 여수 이곳 저곳을 누비는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코레일이 특별 편성한 MTB(산악자전거) 열차인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를 타고 여수에 도착했다.

이번에 여수 덕양역에 도착한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는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 편성하는 것으로 특별관광열차다.

동호인들은 이튿날인 24일까지 자전거로 여수 곳곳을 누비 후 다시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를 타고 돌아갔다.

최근 관광열차를 증명하듯 여수로 오는 특별열차 편성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수학여행단체 특별 열차인 E-train 등 4회 이상의 특별열차가 편성돼 셋째 주에만 2000여 명이 여수를 방문했다.

4월 17일에는 구미시 인동농협 여성단체 회원 500여 명이 특별열차를 타고 여수에 오기도 했다.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도 올 하반기까지 3~4차례 더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관광도로서의 여수의 매력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지속적인 특별열차 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행사 등을 포함해 특별열차 승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도로 개설 맨 자전거도로를 함께 조성하는 등 자전거도로 확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름다운 여수에서 자연과 함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시 제작 관광 웹드라마 '마녀목' 국제 웹영화제 수상작 후보에 올라

3년 연속 본선 무대 퀘거



랑으로 구성됐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 때 여수시 화정 면 개도에 있는 450년 수령의 느티나무에 관한 전설을 바탕으로 마부의 딸 복녀와 신라시대 해울서방의 1000년에 얹힌 인연의 글래 속에 전생의 기억을 찾아 세

남녀가 여수로 떠나는 이야기다. 여수밤바다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여수 관광을 안내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주)여수관광레저-市골프협회, 골프산업 발전 협약



(주)여수관광레저와 여수시 골프협회가 골프 산업 발전과 유소년 골프 선수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여수관광레저 제공>

HOTEL the City와 여수시티파크 CC를 운영하는 (주)여수관광레저는 최근 여수시 골프협회와 여수시 골프 산업 발전과 지역의 유소년 골프 선수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어 관광사업의 발전을 더하고 있다.

업무협약과 함께 여수관광레저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골퍼들을 위한 굿매너와 훈련원 이벤트, 반비지 캠페인, 지역민(핸드) 할인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며 투숙객들을 위한 이벤트로 키즈어메니티 무상대여와 무료셔틀운행 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여수시티파크 CC와 HOTEL the City는 정규 18홀 퍼블릭 골프장과 특2급 55실 규모의 특급 호텔로 이루어진 복합 리조트 단지로 도심과 10분 이내에 위치한 점과 전 흘에 야간 조명 시설을 갖추고 있어 3월~11월까지 야간 라운딩이 가능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주민자치 본보기 여천동 배우자”…전국서 잇단 벤치마킹

사무관들 이어 포항서 방문

여수시 여천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여천동은 포항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명이 지난 26일 여천동을 방문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 자체인재개발원에서 연수 중인 사무관 20명이 여천동을 찾기도 했다.

방문자들은 주민 전체가 참여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천동의 마을공동체 자치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천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생단체 회원 150여 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원들은 희망워크숍을 열어 지역 현안



지난 26일 포항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여명이 여천동을 찾아 마을공동체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여수시 제공>

을 발굴해 토론회를 통해 해답을 찾고 있다.

또 스스로 희망기금을 만들고 착한가게를 발굴해 이웃을 도우며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옥천 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

원장은 “여천동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풀어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주민자치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일회용 컵 사용 금지 홍보

여수시가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393곳을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원: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